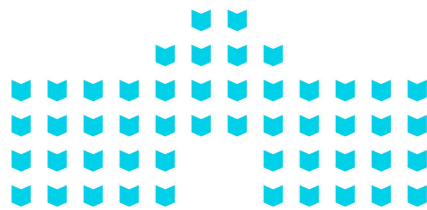

제 4회 서울특별시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회의록

2015. 1. 30.



서울도서관

작성자

과명: 도서관정책과

담당: 김지안
(☎2133-0227)

과장: 박수정
(☎2133-0220)

관장: 이용훈
(☎2133-0200)

제4회 서울시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회의록

〈회의 개요〉

- ◆ 일 시 : 2015.1.30.(금) 14:00-16:15
- ◆ 장 소 : 서울도서관 (4층 사서교육장)
- ◆ 참 석 : 8명
 - 당연직: 서울도서관장(부위원장),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 (정미연 평생교육과 담당사무관 대리출석),
 - 위촉직: 유송숙, 이정수, 육근해, 박계숙, 차미경, 이현주
 - 간 사: 도서관정책과장
- ◆ 안 건 및 심의결과
 - 위촉장 수여 및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서울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원안가결)
 - 서울도서관 회원관리 규정 일부개정안 (원안가결)
 - 서울도서관 자료열람 및 대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원안가결)
 - 서울도서관 자료실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원안가결)
 - 서울도서관 책바다 국가상호대차서비스 규정 제정안 (원안가결)
 -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서울시 2015년도 시행계획 심의 (원안가결)

○ 부위원장 : 안녕하십니까? 서울도서관 관장 이용훈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서울특별시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는 도서관법에 의해서 각 광역자치단체에 설립·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조직입니다. 법률에 따라서 시장님이 당연직으로 위원장이시고 대표도서관장이 당연직 부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장님께서 참석을 계속 하고 싶어 하시지만 사정상 참석이 어려워서 부위원장인 제가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회가 두 번째입니다. 2012년 12월 18일 날 처음 1기가 구성 되어서 2년의 임기를 마치고 오늘 제2기로서 2014년 12월 18일부터 2년간 여러분들께서 수고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수락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하여튼 2년 동안 서울시의 도서관 발전에 많은 자문과 조언과 그리고 또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보고사항을 먼저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위원회가 심의를 할 권한이 있는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의사항들 논의하고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보고사항 내용은 회의자료로 같음 -

○○○ 위원 : 지금 설명하신 올해 사업이 24개예요. 사실 숨차게 계속 하시는데 정말 대단합니다. 대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서울도서관이 이제 본궤도에 올라가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3쪽 보니 주민참여 사업이 15개인데, 어떻게 만들어진 거고, 예산이 11억인데 어떻게 하시는 건지요?

○ 부위원장 : 주민참여예산은 시가 3년째 하고 있고 500억의 범위 내에서 주민들이 사업제안을 하고 선정하는 주민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서 계속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투표를 해서 선정이 돼서 500억 범위 안에 들면 확정이 되는 겁니다. 우리 분야뿐만 아니고 거의 시 전 분야에 다 있는데, 500억 중에 11억 정도가 도서관의 주민참여 예산입니다. 이것은 이미 내용이 확정됐기 때문에 각 자치구에 저희가 통보해서 자치구에서 사업계획을 최종 확정해서 보내주면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고 그것을 집행하게 되는 겁니다.

○○○ 위원 : 직접 일은 안 해요?

○ 부위원장 : 사실 저희가 직접 하는 일은 없습니다.

○○○ 위원 :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혹시 이런 것 때문에 전체적인 계획 틀에서 좀 어긋나거나……

- 부위원장 :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확정이 된 다음에 그대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소위 말하는 저희 실링을 깎는 게 아니고 별도로 확정이 되면 그만큼 플러스되는 거지요.
- 행정지원과장 : 주민참여예산을 잠깐 말씀드리면, 박원순 시장님 들어와서 500억을 별도로 책정을 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자치구 사무가 들어오는 겁니다. 경로당이라든가 작은도서관 개보수라든가 그런 게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 시나 주관부서에서는 전혀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필요로 하는 숙원사업들로 나중에 PPT도 하고 위원들이 투표를 합니다. 이렇게 선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정책적으로 개입할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 위원 : 예를 들면 이게 원래 도서관 사업비로 들어오면 도서관 증진하는 데 훨씬 더 계획적으로 잘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요.
- 부위원장 : 그러면 좋은데 이 주민참여는 굉장히 중요한 새로운 방식이고 그래서 500억이라는 예산 안에서 주민들이 자유롭게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플러스 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위원 : 지금 중복되는데요. 예를 들면 ‘회원증 하나로 모든 구립도서관을 이용하고 싶어요’ 이게 3억이에요. 그런데 지금 국가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은 중복사업 아닌가요?
- 부위원장 : 중복사업은 아니고요. 저희는 전 단계 사업으로 보고 있지요. 왜냐하면 저희가 올해 4억을 투자해서 하지만 그거 갖고 전체를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치구 단위로 먼저 묶여 있으면 저희가 자치구 단위 25개를 그대로 묶는 거예요. 나중에 교육청까지 해서 그대로 묶으면 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 위의 단위를 만들고 있는 거고 지금 현재로 자치구별로도 이미 그렇게 묶여져 있는 데가 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못 했기 때문에 이 예산으로 올해 하겠다는 거고 이걸 중복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서로 보완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 장애인서비스에 대해서요. 일단 숫자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기는 한데 2페이지에 6억 900만 원하고 그다음에 21페이지에 7억

2100만 원이잖아요. 6억 900이 줄었다는 건가요, 아니면 7억 2100이 맞는 거지요? 숫자가 좀 안 맞고요.

○ 부위원장 : 예, (올해 장애인도서관 육성지원 사업비는) 7억 2100이 맞습니다.

○○○ 위원 : 그다음에 아까 쪽 보고하시면서 작은도서관, 공공도서관이 숫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구립도서관이 늘었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셨는데 사실 장애인도서관은 늘어도 예산이 안 늘더라고요.

○○○ 위원 : 장애인도서관이 사실은 서울시에 있는 장애인들을 커버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법이 앞으로 바뀔 거지만 공공도서관의 한 범주 안에 있어서 이것을 우리가 막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그만큼 재정지원이 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 위원 : 그다음에 11개 있는 장애인도서관들과 지속적인 간담회와 지속적인 워크숍을 통해서 진행해야 될 문제지만 공공과 장애인도서관은 협력체계가 잘 없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몇 군데 협약을 해서 이진아기념이든 계속 저희가 책을 빌려주기도 하고 프로그램도 같이 하는데, 중요한 건 11개 도서관을 서울에 있는 공공도서관과 유기적인 연결을 잘해 주면 굉장히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거든요. 물론 장애인도서관들도 그만큼 개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 논의를 통해서 서울도서관에서도 그렇게 하도록 권유를 해 주시고, 물론 저희 쪽에서도 자꾸 하도록 권유를 할 거니까, 그렇게 했을 경우에 장애인서비스가 되는 건데 지금 자꾸 장애인은 장애인만 따로 떼어놓고 ‘공공’, ‘공공’ 하니까 이 안에서, 정책 자체 내에서도 굉장히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 위원 : 그리고 장애인이라는 것은 사실 독서장애인은 큰 범주에서 보면 시각장애인 다르고 나머지가 다른 게 아니라 모두가 한 계층이거든요. 어르신, 다문화, 소외계층 그다음에 시각, 청각, 중증이 다 하나거든요. 물론 역사적으로 시각이 먼저 시작을 하다 보니까 계속 여기가 자꾸 따로 노는데 이것을 좀 끌어당겨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 혼자 한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큰 틀에서 끌어당겨 주셔야 다른 복지관이나 도서관들이 끌려오니까 끌어당겨주셔서, 이 시각이 이

안에서 녹아나면서 가지고 있는 자료를 다른 전체적인 장애인들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는 이 전 회의 때도 계속 논의했던 거고요.

○○○ 위원 : 그다음에 예산 지원에 있어서, 제가 서울문화재단에서 한 책 읽기 할 때도 진행을 한번 해 봤는데 많은 사람들의 의식이 장애인도서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독서프로그램 신청을 하면 제외를 시키더라고요. 사실은 장애인들도 한 도서관 한 책 읽기에 참여해서 지금 30개 도서관이 했다 그러면 그중의 하나는 장애인도서관이 들어가서 기회가 된다면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어울려서 독서토론폰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든다면 좋을 것 같고, 그것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또 하나는 국립장애인도서관에서 독서프로그램을 장애인프로그램을 몇 개 꾸려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서는 또 제외가 되고, 그러니까 자꾸 여기서 제외, 저기서 제외 이런 식이 많은데 그러지 말고 아이디어가 좋고, 아이디어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한두 개씩 끼워 넣어줘야 이게 시너지 효과도 내고 그러면서 이 장애인서비스도 발전이 되는데 늘 보면 한 번 운영비 주고 뭘 주니까 여하튼 다른 쪽의 프로그램에 신청을 넣으면 빠진다는 거지요.

○○○ 위원 : 저희 같은 경우는 서울시교육청에서 100만 원, 150만 원,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프로그램도 했었는데 서울도서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이런 어려움이 있더라는 거지요.

○ 부위원장 : 예, 그것은 저희가 올해 기본적으로는 자치구 단위로 모든 도서관들을 연결하는 겁니다. 지금 아무래도 초기이고, 또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공공하고 작은도서관 연계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도서관도 같이 연결할 수 있고 같이 협력할 수 있는 자리는 올해 빠른 시간 내에 저희가 만들어 보고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 그러니까 한 도서관 한 책 읽기라든지 실버라든지, 사실은 어르신 프로그램도 제가 제일 먼저 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프로그램도 사실은 지금 있는 공공도서관, 큰 글자책 갖고 하는데 장애인도서관은 음성도서도 있어요. 이게 함께 만들어져서 어르신 책 읽기도

잘 연계해 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확산해 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 : 제가 볼 때는 책나래에 참여하는 게 67%인 거는 나머지 공공도서관은 자료도 없고 장애인서비스에 관심이 아직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은 서울도서관에서 사서 연수라든지 서울도서관의 사서들 워크숍이라든지 관장님들 모임에서 거기에 참여하도록 조금 더 어필이 필요하지 않을까,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 위원 : 경기도가 서울보다 훨씬 앞섰던 것은 두루두루서비스가 있었거든요. 서울도 이제 웬만큼은 갖고 있으니까, 큰 글자야 어차피 상호대차하기 힘들지만 점자책은 제가 늘 얘기하지만 많이 비치할 필요는 사실 없어요. 그런 것들이 통합이 됐을 때 상호대차가 이루어질 수 있고, 중요한 건 마음이 중요하거든요. 책은 어디서든지 갖고 가서 할 수 있으니까요.

○○○ 위원 : 그래서 67%밖에 참여를 못 했다는 것은 그 나머지가 아직도 사각지대에 있다는 거니까 서울도서관에서 이게 100%가 될 수 있도록, 그래야 서울이 모범적인 책 도시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 부위원장 : 하여튼 저희가 모든 도서관이 참여하도록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상도 확대해서 더 많은 시민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정책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 김해 같은 경우가 김해시 장애인도서관 하나가 모든 책을 같이 커버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참여하지 못하고 자료가 없는 데들은 다른 도서관들이 장애인도서관을 커버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책이 없어서 못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서로 연계만 하면 이 서비스는 확산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을까라는, 관장님께서 그런 마인드가 있으시니까 조금 더 공공도서관을 끌고 가실 수 있었으면 합니다.

○ 부위원장 : 예, 앞으로 공공도서관, 장애인도서관, 작은도서관, 다 같이 서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자리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서로 협력의 기

반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 위원 :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전에 교육청 가서도 그 얘기를 했는데, 지난번에 국립에서 얘기할 때도 그 얘기를 했고요. 어차피 카드를 하나 갖고 쓰잖아요. 그런데 저는 제일 아쉬운 게, 내가 강서구에 붙일 보러 갔을 때 책을 빌렸는데 강동에 있는 집에 가면서, 퇴근하면서 반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나중에 잘된다면 있으면 좋겠어요.

○○○ 위원 : 시민들이 제일 바라는 게 그거지요.

○○○ 위원 : 그러니까요. 앞으로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해야 되는데 일단 서울시라도 그런 아이디어를 계속 고민을 하시면 어떨까 싶은 게 직장인들이 늘 돌아다니면서…… 저는 저 개인적으로도 공공도서관에서 책을 빌리면 반납은 늘 연체를 해요. 그래서 책을 못 빌려요. 왜냐하면 바쁘니까 못 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빌려서 저기에 반납하는 시스템이 외국은 잘돼 있던데 우리도 좀, 물론 김해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의 카드를 사용한다면, 그것까지도 가능할 수 있도록 계속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시스템을 구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좀 했으면 해요.

○ 부위원장 : 하여튼 그것은 시민들이 워낙 많이 원하시니까,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술적으로 또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나 법률적인 문제, 책이라는 게 개별적으로 도서관의 자기 자산이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들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고 여러 가지가 검토할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책이음 서비스를 진행하면서 계속적으로 같이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위원 : 회원 DB를 다 공유해야 되니까 그게 쉽지가 않은 거지요.

○○○ 위원 : 그런데 어차피 지금 카드 하나가 된다는 것은 DB는 하나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 위원 : 그렇지요. 이용자들 DB하고 자료 DB가 하나로 통합이 되어야지, 서울시내라도 같이 통합이 되어야 되는데……

○○○ 위원 : 그렇게 하면서 장애인도서관도 결국은 DB 하나로 전부 만들

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같이 맞물려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지요.

○ 정보서비스과장 : 그런데 경비가 많이 들어가지요. 그러니까 책을 A 도서관에서 빌려서—서울은 끝과 끝이 멀잖아요—그 도서관에 반납을 하게 되면 그 책이 또 원래 소장됐던 도서관에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경비가 발생이 되겠지요. 그러면 그것은 본인부담으로 하느냐 아니면 국가가 제공하느냐 이 차이인데 어차피 돈은 들어가지요.

○○○ 위원 : 그런데 택배시스템이 잘 된 게 뭐냐면 예를 들면 서울시 전역에서 택배가 다 모아지잖아요. 집중국이 있어요. 거기로 짝 갖고 와서 거기에서 짝 가져가요. 그 시스템이 이용된다는 거지요. 예를 들면 25개 구에서 서울로 모여요. 도서관마다 그다음 날 한 번씩 움직이는 거지요. 거기에서 A 도서관에 있는 것 C로 주고 C 도서관 것 B를 주고 B 도서관 것 D를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스템으로 어떻게 구현할 것이냐, 저는 항상 어떤 정책이든지 ‘돈 많이 들어가요’ 이것보다 어떻게 하면 구현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시작을 하면 방법은 나올 수 있다는 거지요.

○ 정보서비스과장 : 과제지요. 과제로서 개선된 방법이 나올 수가 있겠지요.

○○○ 위원 : 관장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그 예산이 아마 안 될 거예요. 그걸 다 통합하려면 구별로 매일 차가 움직이든지 아니면 서울도서관으로 와서……

○ 부위원장 : 제가 이 얘기를, 이건 과제라서 지금 당장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 그것은 아니고……

○○○ 위원 : 그러니까 당장은 안 되겠지만 충분히……

○ 부위원장 : 계속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그냥 그 도서관에서 갖는 있는 겁니다. 어디 있는지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시스템에서 그냥 이 도서관으로 로케이션만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시스템의 가장 큰 궁극적인 관점은 어디에 책이 있든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책이 굳이 원래 집으로 안 가고 로케이션을 계속 바꿔주면서 존재하는 거지

요. 그러다가 일정 기간 되면 통틀어서 한번 장서 점검하듯이 싹 정리하는 이런 방식으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 위원 : 그것도 나쁘지는 않은 방법인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정리가 필요하겠네요, 그렇지요? A 도서관에 있는 게 C로 갔으니까 검색할 때 그게 나와야 되겠지요.

○ 부위원장 : 위원회 제안으로, 문제 제기로 굉장히 재미있는 상상을 해 봤습니다.

○○○ 위원 : 원래 실현은 상상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 부위원장 : 소셜 픽션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이언스 픽션이 있고 소셜 픽션이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이언스 픽션은 굉장히 잘 알아서 그것 때문에 사실 과학기술이 굉장히 발달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회도 그렇게 영뚱한 꿈을 꾸는 것을 통해서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지금 많이 활발하게 하거든요.

사실은 생각해 볼 수 있지요. 어차피 지금 모든 걸 통합한다는 개념은 사실은 더 신중하게 생각하면 거의 모든 것을 다 표준화해서 하나로 만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류도 그렇고 다 그렇게 되어야지 아니면 오히려 쉽지 않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다 보면 결국 모든 도서관이 하나처럼 움직인다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저희가 사실 이것을 이렇게까지 기다린 건 뭐냐면 서울에 있는 도서관을 운영하는 관리시스템이 되게 다양해요. 어디든 마찬가지로요. 그런데 저희는 숫자도 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일괄적으로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기가 어려웠는데 작년에 국립중앙도서관이 개발해서 그런 것도 연결할 수 있는 기반도 만들고 해서 저희가 ‘그러면 올해부터 해 보자’ 이렇게 해서 올해 참여를 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지금 ○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일부 시행하는 자치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치구 안에서는 어느 정도 권역도 작고 다 하나

의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더 빠르게 정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자치구 단위로 계속 하면서 일정한 상황이 되거나 조건이 되면 확대하는 방식으로 가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것을 단기간 내에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저희도 책이음 서비스를 하면 몇 년 동안 계속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 중에 이런 일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하면서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민카드와 저희 책이음 카드를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게 오히려 저희들이 당장 고민해야 되는 문제고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서울시민카드는 저희가 아니고 시에서 전체적으로 시민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건데 거기에 공공도서관은 굉장히 중요한 시민들의 문화 요구라서 카드를 하면, 사실 그 목적 자체가 우리하고 똑같거든요. 저희는 시스템을 구축해도 서울시민의 경우는 카드가 2장이 되잖아요. 이런 경우 과연 그럴 필요가 있을까, 그런데 국가에서는 어떻게 될지 올해 좀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해결책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 위원 : 어차피 DB를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개인정보만 확실히 보장이 된다면 여기서 그걸 접속해 가지고 시민인지 아닌지 확인되고, 카드 하나 갖고 사용하는 것은 무리가 없다는 거지요. 지금 장애인 같은 경우도 등록돼 있는 장애인 DB를 사용한다면 굳이 장애인카드를 제시하지 않아도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대면 이 사람이 장애인인지 다른 데서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가고 있어서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 부위원장 : 예, 저희도 작년에 했던 게 회원카드를 따로 발급하지 않고 신용카드나 학생증 같은 데에다가 저희 회원카드로 쓸 수 있게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게 맞는 방법일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빠르게 기술들이 개발되어서 저희가 좀 더 빠르게 정책도 결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전하고 속도

감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여기는 보고를 안 드렸는데 저희가 올해 관심 있게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 중의 하나가 전문도서관 부분입니다. 박계숙 위원님 와 계시는데, 저희가 현재 서울시에 있는 전문도서관 현황을 조사했습니다.

목표는 뭐냐면 공공도서관은 퍼블릭하기 때문에 아주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하기는 어렵습니다. 대학교 개방은 또 다른 문제기는 한데, 그것보다 더 깊이 있는 전문적인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 도서관들이 많이 있는데 그 도서관들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대시민 개방을 하는 전문도서관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은 없지만 협력, 대화를 통해서 조금 더 시민들이 접근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시민들이 사실은 잘 모르거든요. 저희 도서관 근처에도 걸어서 100m 이내에 전문도서관이 몇 개 있습니다. 여기에 인권전문도서관이 있지요. 여기에 언론전문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권과 언론을 담당하는 전문도서관이 있거든요. 실제로 거기 둘 다 시민들에게 개방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거의 모든 시민들이 잘 모르시거나 이용을 잘 안 하시거나, 저희도 사실은 잘 모르고 쉽게 지나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저희가 현책방도 그렇고 동네책방도 알리는 것을 굉장히 중시하고 있습니다.

도서관도 사실 마찬가지로입니다. 저희가 작은도서관 합치면 거의 1000개가 있는데 시민들은 이 도서관이 있는 걸 모르기 때문에 자꾸 도서관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고, 그래서 현지에 있는 도서관이라도 적극적으로 잘 알리는 것도 시민들에게 도서관 서비스의 만족도를 굉장히 높이고 참여를 높이는 데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서 그런 작업들을 하려고 합니다. 특히 올해는 전문도서관 분야로 해서 좀 더 저희가 정보를 확인하고 시민들에게 알리고 개방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서로 협의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또 저희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도서관들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 드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올해 계속 고민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아마 다음

번 하반기에 위원회 할 때는 좀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 그러면 서울 쪽에서 조사하신 전문도서관, 왜냐하면 저희도 그렇고 전문도서관을 파악하는 데, 데피니션(definition) 자체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어렵거든요. 그래서 혹시 파악하신 게 있으면 저희하고 정보를 좀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부위원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파악해서 정리되면 위원님들께 다 보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 서울에 전문도서관이 어떤 곳이 있는지 또 그것들을 시민들이 이용하기 좋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주시고요.

참고로 저희도 올해 전문도서관협의회에 가입을 해서 전문도서관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더욱이 공공도서관협의회에도 가입을 해서…… 저희가 요새 가입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나중에 인터넷으로 찾아보시면 저희 서울시의 정책지도라는 게 있습니다. ‘서울시 정책지도’, 이렇게 인터넷 검색하시면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도서관, 공원, 이런 것처럼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편의시설, 문화시설들을 시민들이 얼마나 이용하기 좋게 되어 있느냐 이런 거를 지리정보를 이용해서 보여줍니다. 이게 지금 저희 도서관의 위치고, 몇 장 나옵니다.

저희가 작은도서관 포함하니까 도서관에 걸어서 갈 수 있는 시민의 수가, 접근권역 내의 인구가 95%입니다. 사실 95%면 100명 중의 95명은 도서관에 갈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80% 이상이 굉장히 높은 수준의 향유도를 하려면 아직도 과제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도서관이 아예 없지는 않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거기 중요한 게 이런 겁니다. 아예 도서관이 없어서 향유할 수 없는 지역의 거주자, 지역들이 이 지리정보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도서관 건립도 이런 지자체하고 계속 협의하면서 이런 지역부터 우선 건립을 통해서 100% 향유를 하도록 하고, 그러면서 기존 도서관들은 운영을 내실화해서 하나하나를 다 시민들이

이용하시게, 거기에 네트워킹은 당연히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시민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도서관에 가고 그 도서관을 통해서 필요한 서비스는 어느 정도 다 향유할 수 있도록 해 드리는 것, 이런 것들을 저희가 목표의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계속 고민을 하고 사업들도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 혹시 보고드린 현황, 그다음에 2015년 사업에 대해서 더 말씀 없으시면 다음으로……

○○○ 위원 : 교육청도서관을 생각 안 할 수가 없네요.

49쪽,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사업 하고 있잖아요. 저희 교육청도서관들도 매년 같이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관장님, 예산을 좀 같이 쓸 수 있도록 해 주세요. 1년 내내 하는 사업을 일은 같이하면서 예산은 쓸 수 없게 해 놔 가지고 직원들이 불만이 많아요. 일을 하면서도 이거 꼭 해야 되느냐고 자꾸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같이 쓸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한 책 갖고 사업을 엄청 많이 하잖아요. 금액이 3억 1000만원밖에 안 되는 돈을 갖고 사업은 1년 내내, 가짓수는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도서관들은 예산을 쓸 수 없게 해 놔 가지고 사업은 1년 내내 같이하면서 돈을 안 준다고 직원들이 불만이 많아요. 이 런데 우리가 해야 되겠냐고요. 실무자들한테서 항의를 많이 받습니다.

관장님, 이거 쓸 수 있는 근거 마련을 해 주시든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 부위원장 : 저희가 사실 방법을 찾아보려고 애를 썼습니다만 마땅한 방법을 아직까지 못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산이라는 게 그렇더군요. 자치구로 가는 돈과 교육청으로 가는 돈은 항목이 달라서, 그래서 예산 편성이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 위원 : 올해는 꼭 좀 해 주세요.

○ 부위원장 : 예, 알았습니다.

○○○ 위원 : 같이 이렇게 하는 사업이 사실은 참 좋거든요. 저도 송파도서관에 있을 때 송파구에 있는 구립도서관들을 제가 다 다녀봤어요. 작은도서관을 다 다녀 보니까 같이 사업을 하자니까 한두 도서관만 빼고 다들 하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면 송파도서관이 규모가 크니까 무슨 행사를 해도, 북페스티벌 이런 걸 한다고 할 때도 송파도서관에서 예를 들면 예산의 50%를 내고 나머지 구립도서관들은 한 10%씩만 내게 해서 이용자들을 같이 강당에 모아서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젊은 20대 친구들이랑 일해 보니까 아이디어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업하면서 되게 재미있게 했었거든요. 그런 걸 생각하면서 이런 데서 적극 지원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부위원장 : 어쨌든 교육청도서관도 역사와 전통이 있고 역량을 아주 충분히 갖고 계시고 또 자치구는 뒤늦게 출발했지만 수도 많고 역동적이고, 이런 것들을 서로 잘 결합해서 지역 내에서 시민들에게 최고의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고, 어쨌든 저희는 아무래도 지방자치 관점에서 우선 할 수밖에 없어서 일단은 자치구 단위로 하면서, 책축 제도 같이 참여해 주시고 예산도 도와주셨고 또 한 책을 같이 지역 단위로 참여하고 계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떻게든 최대한 도움을 드리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께서 좋은 방안을 찾아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 : 우선 아까 보니까 서울시 도서관들을 위한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도서관별 프로그램 지원도 해 주시고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 사서들끼리 뭔가 공통으로 하는 일들에 대한 지원도 한번 공모제를 통해서 개발을 해 보시면 어떤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도서정가제 문제도 있고 예측되는 해결해야 될 현안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사서들이 꼭 한 도서관이 아니라 몇 사서들이 모이든지 해서 그 예측되는 현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그밖에 여러 가지 장기적으로 해야 될 일도 좋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혼자 해결하기 힘든 사서들이 모여서 뭔가

를 해 보고자 할 때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을 공모 형식으로라도 좀 해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 부위원장 : 저희가 사실은 안 한 건 아닙니다. 지금 전자책 분야하고 도서정가제 때문에 몇 번 하기는 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자발성에 근거한 건 아니고 저희가 의도적으로 계속 협의체를 만들고 회의를 했었지요. 지금 말씀하신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사서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범위 안에서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 위원 :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주민참여예산을 보면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잘 활용하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게 가능한 건지 모르겠는데, 여기 예산들이 보니까 도서관 운영에도 관련된 예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운영 말고 뭔가 시민들이 참여해서 같이 도서관에서 활동하거나, 프로그램도 좋고 아니면 도서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좋고, 시민들이 물론 제안하는 형식이지만 사서들과 같이 해 볼 수 있는 영역은 없을까, 그러면 굉장히 시민 참여도 유도하면서 도서관에서도 함께 뭔가를 계획하고 나아가는 좋은 예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 부위원장 : 주민참여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과정을 거쳐서 결정되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개입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참여해서 사서들과 같이 뭔가를 해 볼 수 있는 건 여러 가지 지원이나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그런 데 저희가 관심 갖고 그런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 :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장서를 봤더니 서울도서관 장서예산이 도서구입이 4억 3000 정도 그리고 기타 정기간행물이 3억 정도인데, 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도서관에서 매체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 대부분의 공공도서관에서는 이렇게 다양하게 매체를 구입할 예산이 안 돼서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장기적으로는 공공도서관이 장서 구성도 좀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개발해서 예를 들어서 공공도서관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정기간행물 리스트라든지 해

외 정기간행물이나 신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정리를 해서 서울시에 있는 공공도서관이나 기타 전국에 있는 공공도서관에 우리가 자원을 이렇게 다양하게 해 보자라고 알려 주시고 선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부위원장 : 잘 참고하겠습니다.

○ 정보서비스과장 : 자료 다양화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 : 서울도서관에서 대표도서관 격으로 하는 여러 가지 행사, 사업에서 따라오는 행사도 있고요. 행사는 서울도서관에서 같이 근무하시는 직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잘 알고 잘하기 때문에 차질 없이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외부적으로 나가서 지원을 해 가지고 지금 구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어떻게 해서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두 가지 부분은 자신 있게 잘하시는 부분인데, 서울도서관이 어떻게 보면 대표도서관의 대표도서관 격이다 보니까 외부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민간단체라든지 여러 저기에서 ‘행사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는 여러 가지 요구를 좀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많지요. 굉장히 많지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도서관 쪽에서 조금 소홀하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올해부터 만약 저거 한다면 조금 고르셔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서울도서관 쪽에서는 다 받아주면 좋지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같이 하십시다’, ‘공동으로 합시다’ 또는 ‘후원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회의장도 빌려 달라, 뭐도 해 달라, 뭐도 해 달라, 같이 사업도 합시다, 이렇게 저거를 하는데 원칙적으로는 그걸 다 받아줘야 되지요. 그런데 지금 이 직원들 가지고 서울도서관 운영하고 자체적으로 운영하기도 힘든 저거인데 외부 것까지 받아서 하려면 어떨 때는 잘못하면 소홀하게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 부위원장 : 예, 있습니다. 저만 가만있으면 괜찮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서울의 대표도서관이기도 하지만 지리적 위치, 상징성, 여러 가지 그것

때문에 저희랑 같이하자고 하는, 다양한 행사를 같이하자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다 할 수도 없고 어떤 경우는 입장이 안 맞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최대한 하려고 합니다만 저희가 일부분은 소홀한 부분도 있고 합니다.

- 부위원장 : 말씀 주신 것은 저희가 참고해서 좀 더 신중하게 할 수 있는 걸 잘 골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너무 많아서 제가 직원들에게 미안합니다.
- 도서관정책과장 : 직원을 많이 늘려주세요.
- 위원 : 이 사업 내용을 보면 많이 늘리셔야 될 것 같아요.
- 부위원장 : 위원장님께서 오셔서 들으셨어야 되는데……
- 위원 : 그러니까 누누이 얘기를 드리는데 오늘 안 오셔서……
- 부위원장 : 사실은 관심이 없으신 건 아닙니다. 저희가 사실은 해야 되는데 이게 공공에 계신 분은 알겠지만 직원 T/O 하나 늘리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고, 가장 중요한 건 설득력입니다. 설득력이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 분야, 그러니까 사실 그걸 결정하는 여러 윗분부터 실제 담당하는 조직부서, 시민들까지 이분들에게 우리가 이 사람이 더 필요하다는 걸 설득하는 정말 확실한 방법,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지요. 사실 저희가 지금 열심히, 우리 직원들에게 고마운 거는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서울도서관이 계속 많이 알려지고 하는 것들이 그 부분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은 관장으로서 그걸 제일 잘 해야 되는데 아직 못 해서 썩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해서 죄송한 부분 들입니다.
- 부위원장 : 하여튼 오늘 위원님들이 주신 말씀은 저희가 2015년도 사업 하면서 바로바로 적용하고 늘 생각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신 걸로 알고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부위원장 : 65쪽 현안사안 보고입니다. 이걸 보고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조례가 2014년 10월 20일 날 일부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안을 발의하신 분은 김현아 의원, 김창원 의원, 두 분이 발의하셔서 가지고 9월 5일 날 회부돼서 10월 달에 수정 가결이 됐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참고로 읽어보시고, 내용은 68쪽에 있습니다.

시 종합계획 및 도서관발전 시행계획의 수립이라고 하는 조항이 제 5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정책 목표, 운영 현황, 도서관 발전 방향과 추진 방법, 그밖에 도서관 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게 되어 있고 이것에 따라서 2012년 6월 달에 저희가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기본계획을 만든 거였지요.

그걸 진행하고 있는데, 이 의원님들의 제안은 아무래도 서울이 국제도시고 외국어에 대한 요구들이 많기 때문에 도서관이 이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대응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세 번째 항을 넣었습니다. ‘도서관의 외국어자료 서비스 강화에 관한 사항’ 이것을 발전계획에 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에 따라서 올해 4억 3000만 원 중에 한 9000만 원 정도를 외국어자료를 사는 것으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료, 참고자료라고 거기에 보시면 첫 번째가 이때 저희가 제출한 자료입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조사를 했지요. 그래서 외국어자료 서비스를 각 도서관들이 얼마나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한 자료를 첨부해 드렸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사실 서울엔 영어만 하는 도서관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은 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외국어자료를 이용하시게 해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외국어뿐만 아니라 다문화자료 이런 것들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다문화 쪽 같으면 자료 입수도 쉽지 않고 그렇긴 한데 작년에 성북구에 다문화도서관을 별도로 만들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들은 앞으로는 저희가 종합계획에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 달 조례 개정 때 포함된 내용이어서 현안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 부위원장 : 이제 본격적으로 심의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는 서울도서관의 운영위원회 역할을 겸하기 때문에 서울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권한과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도서관 운영규정은 첫 번째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에서 제정이 된 거고요. 필요한 경우 개정을 했습니다.

오늘도 몇 가지 일부개정안을 저희가 상정하고 심의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먼저 69쪽입니다.

첫 번째가 제5조(출입 제한)입니다.

현재는 3항 ‘그 밖에 도서관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도서관장이 정하여 게시한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이 건으로 해서 저희가 게시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 게시를 한 건지 안 한 건지 정확하지는 않습니 다만 이것 때문에 게시한 적은 없습니다.

최근에 사실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도 종종 발생하고 해서 저희가 이것을 국립중앙도서관 이용규칙을 참고해서 이렇게 바꿀까 합니다. ‘그 밖에 도서관장은 다른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도서관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도서관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이것은 즉시적인 사항이 가능한 거고요. 그 전에는 게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사후조치처럼 되어서, 예방과 사후조치처럼 되기 때문에 즉각적인 대응이 좀 어려웠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이런 식으로 조금 현장대응력을 강화하려고 완화하는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일괄적으로 설명드리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19조(자료의 망실, 훼손 등 변상)에 관해서 4항의 신설인데요.

이게 다른 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변상의 경우가 발생하면 동

일한 자료의 새로운 판본이나 동일한 자료로 반납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연체기간입니다. 이게 망실했을 경우 연체기간 내에 다 처리가 되면 상관없는데, 저희 대출기간이 2주입니다. 2주 안에 처리가 되면 상관없는데 이게 길어지면 연체, 저희는 연체하면 연체한 기간만큼 대출을 중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도 대체 며칠을 연체했느냐에 대한 부분이 자꾸 확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걸 좀 명확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변상도 서로 반납한 경우, 반납처리가 완료된 시점까지의 기간을 연체기간으로 본다’, 이렇게 해서 연체기간을 좀 더 명확하게 규정을 해서 시민들하고 업무처리의 명확성을 높이려고 신설을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저희 회원관리 규정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장애인 분들이 회원가입을 할 경우 그동안 장애인복지카드만 제출하도록 했는데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해도 되는 걸로 구비서류를 한 가지 늘린 거고요. 그리고 ‘대리인을 통한 가입 시 위임장과 위임자 및 피위임자 신분증, 장애인 복지카드 혹은 증명서를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해서 이것도 좀 더 편의를 높였고요. 별지가 뒤에 있는데 그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그동안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던 것을 생년월일로 바꾸는 걸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회원 탈퇴의 경우입니다.

그동안은 관외대출회원이 회원 탈퇴를 할 경우에 탈퇴신청서를 제출하면 됐는데 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은 이런 경우가 쉽지 않아서 이 경우에도 대리인을 지정해서 회원을 탈퇴할 수 있도록 편의를 높이는 쪽으로 신설을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10조의 경우인데요. 개인정보 수집 및 폐기입니다.

이게 개인정보 보호법이 강화되면서 사실 지금 도서관 현장은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재동의를 안 해서 가지고 회원이 자동탈퇴가 됐다가 나중에 늦게 오서 가지고 왜 그랬냐부터 시작해서 다시 복원시켜 드려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그냥 대출기록이 있는 회원이 자동탈퇴가 되는 경우 기록의 유지 문제가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2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다 삭제를 해야 되

는데 저희가 관련 규칙을 살펴보니깐 어떤 행정적 사항이 필요하면 3년까지는 보관해도 되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탈퇴회원 중 대출이력이 있는 경우 1년, 연체자의 경우 3년이 지나면 완전 삭제처리 한다’, 그래서 그 안까지는 일단은 기록을 갖고 있다가 혹시라도 대출, 연체 이런 업무를 처리한 다음에 삭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새로운 조항을 하나 추가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3항 서울도서관 자료열람 및 대출에 관한 규정인데요. 제 6조(열람 및 대출의 제한)에 보면 1항에 ‘서울자료실 및 세계자료실 자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 10월 달부터 세계자료실의 자료 일부를 대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사실 대출을 안 하고 관내 열람만 했었는데 일부 자료들은 저희가 대출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다문화도서관도 세계자료실로 통합을 하면서 그것도 원래는 일반자료실에 있을 때는 대출을 했던 책이기 때문에 이제 4층에서 대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계자료실 대출 시행에 따라서 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서울자료실 자료만 대출하지 않는 걸로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7조(보존서고자료의 열람과 대출)입니다.

저희가 30만 권을 갖고 있지만 상당 부분이, 반 이상이 지하 3층 보존서고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상에 30만 권을 다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그리고 이용률이 떨어지는 책들은 초기부터 보존서고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저희가 정리를 거의 다 마쳤기 때문에 보존서고에 있는 책도 시민이 원하실 경우 대출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절차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원래 처음에는 ‘서울도서관 회원증과 함께 담당직원에게 요청한다’로 했는데 저희가 시스템을 다 만들어서 ‘서울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보존서고 도서를 신청한다’ 이렇게 바뀌어서 저희 홈페이지상에서 검색했다가 보존서고에 있다고 표시가 돼 있으면 대출 신청을 하면 정해진 시간 내에 대출해 드리는 이런 시스템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항을 바꾸려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8조(대출권수)입니다.

‘비도서자료는 영화와 애니메이션에 한 한다’ 했는데, 저희가 작년부터 오디오북을 구비해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오디오북’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제12조(장애인실의 대출)입니다.

‘장애인실의 자료는 점자도서만 대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큰글자도서도 대출하게 하고자 해서 이번에 ‘장애인실의 자료는 점자도서, 큰글자도서를 대출할 수 있다’ 해서 대출을 확대하는 그런 내용으로 개정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4항에 보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서 등록된 시각장애인’, 이겁니다. 이것을 좀 더 서비스를 확대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반영해서 서비스 대상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서울도서관 자료실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이용자서비스) ‘대출(서울자료실 및 세계자료실은 제외)’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자료실 대출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대출(서울자료실은 제외)’ 이렇게 저희가 개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75쪽은 대리인을 지정해서 할 경우에 저희가 서식을 추가한 겁니다. 그래서 서식에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바꾸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규정을 좀 변경하려고 합니다.

전체 규정은 저희 참고자료에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자료 전체 규정을 나중에 참고해 주시고, 이 사항을 일부 개정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과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 : 장애인자료에서 그동안에 점자도서만 관외대출을 했었어요?

○ 부위원장 : 예, 처음에는 그렇게 했다가 저희가 큰 글자를 그쪽으로 옮기면서 거기도 지금 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 그러면 점자라벨책도 대출 안 해요?

○ 부위원장 : 예, 저희가 사실은 지금 대출의 문제가 그런데, 세계자료실도

2년 동안 대출을 안 한 이유가 사실 자료의 양도 적지만 가격도 비싸고 다시 안 돌아올 경우에 회수가 어렵고, 그래서 안 하다가 작년에 세계자료실 대출을 시작한 거고요. 큰글자도 그동안에 저희가 약간 왔다 갔다 했던 건데, 점자라벨책은 아무래도 아직 양도 많지 않은데다 그것도 대부분이 동화책이고 그렇기 때문에 라벨도서는 여기에서 이용해도 충분히 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은 대출하지 않습니다. 테이프도 있고 CD도 있고 수화영상도 있는데 그것들이 아직 양이 충분치 않아서 나가버리면 오시는 분들이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해서 현재로서는 좀 여유가 있는 점자도서하고 큰글자만 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 그냥 권수를 좀 제한해서라도, 왔을 때 하나라도 빌려가고 싶어 하는 사람한테 그냥 가게 하기에는 조금, 만약에 장애아동이 왔거나 누가 왔을 때 점자책은 부피가 커서 택배 외에는 사실 들고 빌려가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CD라든지 점자라벨 같은 게 예를 들면 시각장애아동을 데리고 왔는데 갈 때 빈손으로 가는 것보다 도서관에 와서 책을 빌려간다는 그런 걸 주기 위해서 권수를 제한하더라도 그런 것은 조금…… 촉각도서는 비싸니까 망가질 우려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라벨은 그 정도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번 고민해 보시지요.

○ 부위원장 : 그것은 저희가 좀 더 검토해 보고 다음에 혹시 저희가 대출하게 되면 또 개정을 해서 저희가 대출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 위원 : 7조요. 보존서고자료 대출시스템 정비를 하셨다는 얘가지요?

○ 부위원장 : 예, 했습니다. 이제 (보존서고도서 이용신청 시스템을 개발)했으니까 (개정안 내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뜻으로 개정하는 겁니다.

○○○ 위원 : 그런데 지금 내용상으로 보면 ‘서울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보존서고 도서를 신청한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홈페이지에서만 한다는 얘기에요?

○ 부위원장 : 예, 그러니까 검색을 해야지만 책이 있는 것을 아니까 거기에

버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대출하면 개인의 정보가 있고, 그래서 저희한테 오면 어떤 분이 무슨 책을 신청했는지 아니까 (보존서고 담당직원이 보존서고에) 내려가서 (신청받은 책을)꺼내다가 정해진 시간에 대출하는 거지요.

○○○ 위원 : 그러니까 지금 ‘담당직원에게 요청한다’ 는 없어지는 거지요?

○ 부위원장 : 아니요, 전에는 시스템에 공개를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워낙 많고 저희가 서비스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정리도 다 안 돼 있는 상태여서 공개를 안 한 상태에서 만약에 누가 요청했는데, 이런 자료가 있냐 해서 있으면 저희 직원이 서비스를 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모든 것을 목록에 올리고 거기서 필요한 것을 신청하면 시스템상으로 처리를 해서 대출하겠다는 겁니다.

○ 정보서비스과장 : 페이지를 이용 못 하는 그런 분이 있으면 해 주지요.

○○○ 위원 : 아, 해 주고요?

○ 정보서비스과장 : 당연히 해 주지요.

○○○ 위원 : 그러니까 뭐냐면 담당직원이 없는 경우에는, 지금 이 말은 이렇게 보여요. 뭐냐 하면 담당직원 그런 시스템은 다 없애 버리고 홈페이지에서만 대출을 하겠다는 의도로 보여요.

○ 정보서비스과장 : 그게 이용자가 편한데, 예를 들어서 나이 드신 분이 홈페이지를 이용 못 하면 창구에 있는 직원이 해 주지요. 친절하게 안내를 해 주고, 대부분 이용자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면 우리가 그 홈페이지 상에서 접수를 받아서 책을 바로바로 찾아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대출이 안 되거든요. 시차를 두고 오전·오후 이렇게 해서 보존서고 도서서비스를 하니까 서비스가 축소되는 건 아닙니다.

○○○ 위원 :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보면 되는 거지요?

○ 부위원장 : 예.

○ 정보서비스과장 : 예, 더 좋아지는 겁니다. 안 해 주면 큰일 나지요.

○○○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 : 아니, 전체적으로 운영규정이나 대출에 관한 규정들이 다 이용자 입장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개정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맨 앞의 5조 3항 ‘그 밖에 도서관장은 다른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도서관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도서관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이걸 참 잘 넣으신 것 같아요. 사실은 직원들한테 굉장한 스트레스거든요.

○ 부위원장 : 저희가 워낙 개방성이 높고 위치가 좋다 보니까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이왕이면 저희가 개정을 해서 즉각적인 대응을 하려는 겁니다.

○○○ 위원 : 그나저나 행려자는 어떻게 하실래요?

○ 부위원장 : 저희가 진짜 고민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현재 상황에서 저희가 즉각적으로, 저희가 본청이랑 같이 있기 때문에 청원경찰이나 경찰서나 아니면 가끔 환자가 발생하면 119도 금방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빨리 대처하고 있습니다. 아직 큰일은 없었는데 혹시라도, 최근에 약간 쉽지 않은 일이 발생도 했었습니다.

오히려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사고를 제도나 시스템으로 막기는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시민들이 좀 더 개방적이라서, 시민들이 시민들 스스로를 지키는 거거든요. 저희 직원들을 지키는 것 뿐만 아니고 시민들 스스로 지키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숨을 공간이 없고 좀 더 개방적이고 많은 사람들이 같이 주인으로서 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기대를 가지지만 저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원경찰 1명을 계속 요청하고 있는데 아직 증원이 안 됐습니다. 저희가 4개 층이 있는데 지금 1층에만 있습니다. 현관에만 있는데 사실 후문 쪽에 몇 명이 더 계시면 좋을 텐데 그것도 인력의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 해결을 못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이 생기면 CCTV 등을 확인하고 조치를 하는데, 저희가 이렇게 나가라 그래도 오시는 것을 예방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출입구가 워낙 많아서, 저희가 출입구가 하나만 있으면 얼굴이라도 익혀서 출입자 제한을 하겠는데 여기는 출입구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어떻게 들어오시는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 같은 방법은 전체 문을 닫을 때까지는 어쨌든 사람이 있으니까 오히려 시민들이 스스로 자신과 직원들을 같이 지켜 주는 쪽으로 계속적으로 만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조항이 있어야지 저희가 바로 즉각적으로 나가시라고 하고 조치를 할 수 있어서, 이것은 이전에도 있었지만 약간 경직되어 있어서 좀 유연하고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한 쪽으로 표현을 바꿔서 개정하려고 합니다.

- 부위원장 : 혹시 더 의견이나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위원 :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없고요. 대출권수를 더 늘릴 계획은 없으신가요?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 부위원장 :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아직은 대출이 70만 권인데 사실은 다른 도서관보다는 신간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예산도 있고, 그래서 신간을 꽤 많이 갖고 있어서 수요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440만 명이 도서관 출입자인데, 다 책을 보러 오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출입자는 굉장히 많은데 대출은 그거보다 상당히 적거든요. 어떻게 보면 오셔서 못 보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책이 한 번 나가면, 저희가 두 권까지는 사더라도 결국은 (대출)예약도 굉장히 많이 걸려 있고 이러다 보면 사실 도서관이라고 왔는데 보고 싶은 책이 없는 거지요. 이런 문제도 상당히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대출이라는 것은 많이 되면 좋긴 하지만, 또 저희는 열람 중심의 도서관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어린이 책은 더더욱 그렇고요. 여기 와서 자유롭게 계속 열람을 많이 하는 도서관이기 때문에 책이 나가는 것보다는 계속 있는 게 좋겠다 이런 뜻도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세 권은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 볼까 합니다. 그런데 몇 년 지나면 장기적으로 신뢰성이 쌓이고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런 사정이 있으면 판단해서 늘려주고 이런 것은 생각하고 있는데 당장은 이 세 권은 그대로 유지하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 : 서울도서관은 복 받을 거예요. 이게 스스로 규제 풀고 있거든요. 규제를 해도 될동말동한데……
- 부위원장 : 규제라기보다는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가 서비스를 조금씩 확대하고 안정화되면서 그것을 주로 반영을 했습니다.
- 위원 : 하여간 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규정을 이런 쪽으로 개정해 주시는 게 오히려 위원회 위원으로서 참 좋은 부분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부위원장 : 저희들이 사실은 규정을 정보서비스위원회에서 제정하고 고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는 겁니다. 저희 개관시간 포함해서 다 여기서 정할 수 있거든요. 이게 보통 자치구는 조례에 정해져 있는 경우가 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조례를 개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경직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처음부터 조례에다가 서울도서관 운영조례를 만들지 않고 그냥 여기서 정하도록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서비스를 위해서 규정도 좀 바꾸고 바로 바로 반영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부위원장 :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 개정안은 통과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 그다음에 서울도서관 운영 규정을 하나 새로 제정하는 겁니다. 이게 76쪽에 있는데요. 서울도서관 책바다 국가상호대차서비스 규정입니다.

이것은 전체가 총칙에 1조부터 시작해서 10조까지 있고 그다음에 부칙이 1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월 30일부터 시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저희(서울도서관)가 책바다 국가상호대차서비스에 가입을 하고 2014년 6월 1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아직은 우리 건(서울도서관 도서) 대출(제공)하지 않고 우리 도서관 이용자가 다른 도서관 책을 받는 것만, 신청도서관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

씀드린 대로 저희가 아직은 시간이 좀 필요해서, 그래서 그것에 관해서 국가상호대차서비스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되는 조항을 규정으로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조는 목적이구요. ‘이 규정은 서울도서관이 기존 책바다 국가상호대차서비스 자체의 지침 이외에 자관 실정에 맞는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다음에 제2조(서비스제공범위)는 현재(2014.5)로서는 ‘서울도서관은 신청도서관으로서만 기능한다’, 지금 설명드린 것과 같습니다. 그다음에 ‘향후 시스템 개선을 통해 서비스를 확대하여 제공도서관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고요.

제3조(회원자격)는 ‘서울도서관 관외대출회원’ 그리고 ‘책바다 서비스 개인 신청자 중’에서 ‘서울도서관 회원증 발급 후 1년이 경과한 회원’, ‘최근 2개월간 연체 이력이 없는 회원’, ‘최근 6개월간 대출 이력이 3회 이상인 회원’에 한해서 저희가 책바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4조 ‘열람시간은 서울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운영된다.’

제5조(대출장소)는 ‘서울도서관 2층 일반자료실에서 도착 자료의 대출이 가능하다.’

그다음 6조(대출·반납)에 ‘모든 도서는 직접 방문하여 수령하거나 반납해야 한다.’

제7조(대출권수)는 ‘기존 책바다 지침에 따라 단행본은 1회 3책, 장애인 대체자료 분책형태는 1회 6점 이내로 한다.’

제8조(신청도서 거절)는 ‘타관 도서를 신청하였을 때 다음과 같은 경우 관리자 재량에 따라 신청이 거절될 수 있다’ 인데 각 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관 소장 도서’를 신청한 경우, ‘동 지역 공공도서관 소장 도서’를 신청한 경우, ‘외부 반출이 제한되어 제공도서관에서 거절한 도서(고서, 희귀자료, 보존자료 등)’인 경우 그리고 ‘그

외 기타 담당자가 불가라고 판단한 경우’로 했습니다.

제9조(책바다서비스 중지)입니다. ‘책바다서비스에서의 연체이력이 없을지라도,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해당될 경우 서비스가 중지될 수 있다’ 해서 1호 ‘자관에서 신청자가 연체반납으로 대출 정지 중인 경우’, 제2호 ‘자관에서 신청자가 분실로 대출 정지 중인 경우’, 제3호 ‘자관에서 신청자가 훼손·망실로 대출 정지 중인 경우’, 이렇게 했습니다.

제10조(책바다서비스 재개)입니다. ‘책바다 서비스가 중지된 회원들에 한하며, 그 재개일은 다음과 같다’ 해서 ‘자관에서 신청자가 연체반납으로 대출 정지 중인 경우 자관 대출서비스 재개일로부터 2개월 후’, ‘자관에서 신청자가 분실로 대출 정지 중인 경우 자관 대출서비스 재개일로부터 4개월 후’ 그리고 ‘자관에서 신청자가 훼손·망실로 대출 정지 중인 경우 자관 대출서비스 재개일로부터 6개월 후’, 이렇게 해서 저희가 책바다서비스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정이 되면 오늘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책바다서비스 전체 규정에 따라서 하면서 저희가 이것을 저희 도서관에, 일단 아까 말씀드린 신청도서관으로서만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부위원장 : 그러면 이의 없으시면 제정안은 통과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 이제 마지막 안건입니다.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연도별 시행계획입니다.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는 도서관법에 따라서 정부가 5년마다 제정하는 도서관발전 종합계획에 따른 연차별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보고해야 되는 책임이 각 시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5년도 도서

관발전 종합계획 그 연차별 계획을 작성했습니다. 그것을 오늘 위원회에서 심의해 주시면 저희가 확정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어제 드려서 이것을 다 보고 오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종합계획의 첫 번째 차례에 보시면, 참고로 이 참고자료 3번에 보면 정부의 도서관발전 종합계획 요약본이 있습니다. 요약본을 한번 참고하시면서, 굉장히 내용이 방대한데 그중에서 저희가 해당되는 부분만 연차별 계획을 세웠습니다.

목차를 쪽 보시면 첫 번째가 ‘생애주기별 맞춤형 도서관서비스 확대’라는 항목에 ‘1-1-1.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식정보제공 및 평생학습 지원’ 그다음에 ‘1-1-2. 인문정신문화 고양을 통한 공동체 소통의 강화’ 그다음에 ‘1-2-1. 창조경제 지원을 위한 지식정보서비스 강화’, 1-2-2와 1-2-3은 우리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작성을 안 한 거고요. 그다음에 ‘1-2-4. 미래형 U-도서관서비스 확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큰 카테고리 ‘지식정보 취약계층 도서관서비스 강화’입니다. 그래서 ‘2-1-1. 지식정보 취약계층 도서관서비스 지원 체계 마련’ 그다음 ‘2-1-2. 장애인용 대체자료 확충 및 맞춤형 서비스 강화’ 그다음 ‘2-1-3.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확대’ 그다음 ‘2-2-3. 장병을 위한 병영도서관서비스 강화’입니다.

다음 쪽에 가면 3번(4번) 카테고리는 (해당) 없고요.

5번 카테고리에 가서 ‘도서관 기반 확충 및 운영 내실화’입니다. 그래서 ‘5-1-1. 공공도서관의 지속적 확충 및 시설 노후화 개선’ ‘5-1-2. 공공도서관 서비스 환경 개선’ 그다음에 ‘5-5-1. 도서관 발전재원 다양화 및 기부 활성화’입니다.

그다음에 6번 카테고리에 ‘도서관 자원의 연계·공유·협력 체계 강화’ 해서 ‘6-2-1. 지역대표도서관 기반 확립 및 제도적 지원체계 구축’, ‘6-2-2. 지역대표도서관 공동보존서고 조성 및 운영’,

‘6-3-1. 도서관 협력체계 활성화’,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저희가 합니다.

이것 작성을 어떻게 하나면 정부가 매년(연도별) 계획(수립지침)을 하면(내려주면) 저희가 각 자치구 그리고 교육청에서 해당되는 계획을 다 수집을 합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해당되는 것 카테고리를 다시 다 묶어서 이렇게 하나의 문건으로 만들어서 서울시 전체의 올해의 계획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1쪽의 1-1-1 보시면 저희 도서관의 담당자가 있고 사업개요, 추진계획, 이렇게 쪽 있고 실적 및 목표치가 있고 올해 주요 추진내용 그다음에 투자실적 및 계획, 이런 식으로 해서 체계적으로 다 정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것 안에 들어가면 각 자치구별로 어느 자치구의 어느 도서관이 하는지 다 세부적으로 있는데 저희가 그 내용까지 여기에 다 담지는 못하고 총괄적인, 합한 내용만 저희가 제공을 하게 됩니다.

사실 오늘 이것을 일일이 다 설명드리고 검토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것을 각 도서관들이 체계적으로 자기 도서관 것들을 하겠다고 해서 가져온 거라서 한번 쪽 훑어만 보시면서, 예를 들면 5쪽 같으면 ‘길위의 인문학’은 올해 굉장히 확대돼서 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 도서관 그리고 서울시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6쪽 잠깐 보시면, 2015년도 세부추진계획에 사업기관은 그렇고요, 운영내용 중에 저희가 길위의 인문학 사업, 휴먼라이브러리, 북페스티벌, 고인돌, 이걸 서울경제연구소 거기랑 교육청도서관들이 작년에 아주 잘해서, 올해도 계속 할 거고요. 작가와의 만남, 여러 가지 것들을 여기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문정신문화 고양을 통한 공동체 소통의 강화’ 중에 One City, One Book, 우리는 ‘한 도서관 한 책’ 이지요. 그런 캠페인들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9쪽 ‘향토자료 서비스 및 향토문화 강좌 확대’입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서울 관련 자료들을 구축하고 그것들을 관리하면서

서비스들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11쪽, 이것은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것 중에 ‘도서관 내 창조, 상상 공간 조성’ 입니다. 이게 미래창조과학부가, 정부가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하고 있는 겁니다. 도서관에다가 이런 공간들을 조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에도 광진정보도서관 무한상상실 이런 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각종 다양한, 미래를 상상할 수 있는 3D프린터도 있고 기기도 있고 장비도 지원하고 인건비도 지원합니다. 그래서 설치하면 좋은데 사실 이것은 공간이 일정 부분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못 하고 있고요. 그런데 다행히 관심 있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올해 서울시에 있는 도서관들은 이것에 관심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 : 이해를 위해서 잠깐 제가 중간에 여쭙어 볼게요.

지금 7페이지 One City, One Book, 예산이 조금 이해가 안 돼서요. 2015년 추진계획, 사업목표, 실적 및 목표치 그리고 밑에 투자금액이 있잖아요. 여기는 4억 3400인데 아까 앞에 4페이지에 보면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는 3억 1000이잖아요.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예산이 앞과 뒤가 달라요. 장애인도서관 부분도 그렇고 한 도서관 한 책 읽기도 그렇고, 내용은 다 이해가 됐는데 예산이 앞의 것이 맞는지 뒤의 것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 실무자 : 관장님, 앞의 서울도서관 올해 주요사업계획 금액하고 여기 시행계획하고 금액 차이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 위원 : 예.

○ 실무자 : 앞의 것은 저희 서울도서관 사업이고 이 시행계획은 서울시 전체 공공도서관들의 One City, One Book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 위원 : 3페이지, 4페이지에 2014년도 세출예산에 보면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짝 되어 있는 것 있잖아요. 예를 들면 여기에 보면 ‘장애인도서관 육성 지원’, 이것은 서울도서관에서 지원을 하는 거지요?

○ 실무자 : 예.

○○○ 위원 : 그러면 어차피 여기서밖에 지원하는 게 없는 것 아니에요? 여기 말고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게 또 있어요? 없잖아요?

○ 부위원장 : 아니요, 자치구가 자기 돈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 위원 : 그러면 이것은 지방 것까지 합해서 그런 거예요?

○ 부위원장 : 예, 여기는 교육청, 자치구, 다 합해서 총괄입니다.

○○○ 위원 : 앞의 것은 서울시 예산만 나오는 거고요?

○ 부위원장 : 예.

○○○ 위원 : 예산이 안 맞아 가지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 지금부터 여기 있는 모든 것은 저희 것을 포함해서 자치구 전체, 교육청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 위원 :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 그러면 11쪽 넘어가고 12쪽도……

요즘에 도서관이 시민들의 창작이나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요구들이 있어서, 여기에 보면 예술인들 창작지원 워크숍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15쪽에 보면 ‘취업 및 창업지원센터와의 연계서비스 강화’, 이런 것들도 정부 계획에 있어서 저희도 일부 도서관들이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내용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17쪽, 최근에 U-도서관 서비스 그래 가지고 U-Library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노력하고 있고요.

19페이지 ‘지식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기구 설치·운영’은 사업목적이 전문 사서인력이 부족한 관내 저소득층·작은도서관을 찾아가

서 서비스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 자치구에서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서비스 이용환경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으로 하고, 또 아까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공도서관들과 연계·협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장애인용 대체자료 제작 및 서비스 확대’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5쪽 ‘다문화자료실 다양화 및 다문화콘텐츠 지속적 개발·보급’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다문화도서관들 만들고 그런 자료들도 확충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7쪽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확대·운영 및 활성화’입니다.

이것도 계속 다문화도서관 자료 확충과 더불어 도서관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한 3만 명, 올해도 한 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병을 위한 병영도서관서비스 강화’도 있습니다. 순회문고 하는 데가 있어서 순회문고도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31쪽은 ‘공공도서관 지속적 확충’입니다. 이것은 자치구와 저희가 같이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년 8개소가 예정인데 작년에 9개소 개관했고 올해는 7개소 개관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공공도서관 건립 다변화 및 리모델링 추진’입니다.

이것은 요즘에 특히 서울도 더더욱 이렇습니다만 부지도 확보하기 어렵고 신축도 어려운 상황에서 건립을 다변화하고 또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도서관으로 하는 게 정부의 방침 중 하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35쪽 ‘공공도서관 장서 확충’은 말씀드린 대로 올해는 도서정가제 때문에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까지는 저희 보조금의 60% 이상을 자료를 구입하도록 하던 것을 70%로 확대를 해서 자료 구입을 좀 더 강화했습니다.

그다음에 ‘공공도서관 전문인력 배치 확대’입니다.

이게 사실은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희 도서관도 인력 확보가 쉽지 않고 말씀드린 대로 올해는 이게 한시적인 일이긴 하지만……

저희는 작년에 시간선택제로 14명, 그중에서 열두 분을 사서로 2년 계약했습니다. 다만 35시간 근무하는 사서지요. 올해는 아까 잠깐 보고드린 것처럼 작은도서관 전담인력 25명을 각 자치구에 1명씩 사서를 채용할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규직원으로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계속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서울의 대부분이 위탁 형태로 운영되는 형태기 때문에……

작년에 교육청에서는 인력을 많이 뽑으셨지요?

○○○ 위원 : 8명 뽑았습니다. 발령 안 난 사람도 있고 이번에 1년 만에 발령 난 사람도 있고 한데 이번에 한꺼번에 다 났습니다.

○ 부위원장 : 고맙습니다.

○○○ 위원 : 저희 욕심으로는 한 30명씩 뽑았으면 좋겠는데……

○ 부위원장 : 그다음에 ‘작은도서관 지원 및 공공도서관서비스와 연계 강화’입니다.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올해 25명을 지원해서 지역 내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도서관 기부 활성화’입니다.

사실은 공공영역에서의 기부는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는 장서 기증 이런 것들을 합시다만, 저희는 생각해 보면 자치구 도서관도 있고 재단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기부가 가능한, 물질적인 기부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실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겠습니다만 관심을 안 가질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기본적으로 자원활동가들을 많이 늘리는 겁니다.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참고로 저희가 작년 말에 아름다운 재단하고 협약을 해서 저희 1층에 나눔기부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눔에 관한 책들을 별도의 서고에 갖추고 시민들이 나눔과 기부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참여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단체인 아름다운 재단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기서 올해 재단하고 좀 더 다양한 형태로 교육이라든지 협력사업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그다음에 44쪽 ‘지역대표도서관 기반 확립’입니다.

이것은 저희 도서관도 계속하고 있는 거라서 저희가 열심히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쪽 넘어가서 48쪽입니다. ‘지역 시·도 단위 거점형 공동보존서고 건립·운영’, 이게 가장 시급하고, 또 사실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성과지표에 있는 것처럼, 저희가 2015년도에 구상, 2016년도에 계획, 17년부터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육청에서도 이미 보존서고에 대한 연구도 충분히 하였고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서울이 갖고 있는 장점이자 단점 중의 하나가 서울에 국립중앙도서관도 있고 국회도서관도 있습니다. 사실은 서울에서 일반적인, 특별하지 않은 책들을 굳이 시가 보존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논란도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국회도서관 분관 건립 이런 게 있으면 상당히 의미도 있고 좋은데, 거기도 지역대표도서관 그런 것도 있는데, 저희는 그러한 부분도 있고 또 사실은 실질적으로 보존도서관을 할 만한 적절한 부지와 건립비 이런 것도 상당히 소요가 될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좀 집중적으로 더 고민해서 방안을 만들어 보고 추진할 수 있는 방안, 현재 기본적으로 저희 지하서고에 한 60만 권이 들어가는데 저희 책 15만 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기록관의 역할, 지하 4층에도 한 30만 권 들어가는 공간을 정보공개정책과라는, 기록을 관리하는 쪽에서 임시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공간에 여유가 없어서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준비를 해서 16년에 계

획을 잘 세워서 17년부터는 어떻게든 확보를 할 수 있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이 분위기도 만들어 주시고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 : 보존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 공공도서관에서 하는 것은 이용도 그 목적이 있거든요. 사실 이름이 보존도서관이지만 이용시킬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진짜 이런 부분은 지원이 적극적으로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보존만 생각한다면 관장님 말씀대로 국립중앙도 있고 국회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해야 되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지만 이것은 우리 서울시민들한테 이용시키기 위한 보존도서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은 지원이 돼서……

○○○ 위원 : 일종의 서고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지요?

○○○ 위원 : 예, 서고의 의미라고만 생각하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시켜야지 될 부분이라서……

○ 부위원장 :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맨날 하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요. 책이 보물이라는 것을 자꾸 알려야 됩니다. 얼마 전에 백석 시인의 시집이 7000만 원에 낙찰됐다고 하는데, 책이 시간이 지나면 버릴 물건이 아니고 잘 가지고 있으면 그 자체가 역사고 지식이고 보물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사실은…… 그래도 그것을 국립이 있다고 우리가 보물을 버릴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식의 이야기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런 쪽으로 다양하게, 도서관에서의 책은 보존이라고 말은 하지만 쌓아두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잘 이용하기 위해서 공동으로 서고를 운영하면서 시민들에게 정말 더 많은 책들을 이용할 수 있게 해드리는 그런 목표, 그러면서도 시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지식자원들을 축적하고 그것이 보물이 되는 숙성의 과정으로 홍보, 설득전략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도서관 간 단계별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이것은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기본적으로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라는 심의기구를 두고 자치구 대표도서관장 회의라고 하

는 걸 통해서 서로 협력체계를 만들고, 거기에는 지금 현재 저희하고 자치구 관장들만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장애인(도서관), 전문(도서관), 대학(도서관)을 계속적으로 저희가 서울시 전체 도서관들을 하나로 엮는 단위의 시작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도서관 네트워크라는 민관협력기구를 잘 운영해서 시민들 이야기를 최대한 잘 반영하는 그런 도서관정책을 만들고 또 도서관 간 상호 협력을 잘해서 시민들에게 아주 좋은 서비스도 제공하는 그런 서울시 도서관 체계를 잘 만들어 나가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이 계획에 담았습니다.

혹시 이 계획에 대해서 추가적인 의견이나 조언을 주시거나 질문 있으셔도 좋습니다.

○ 부위원장 : 아, 4시가 지났군요. 그럼 의견이 없으시면..., 한 말씀 해 주시지요.

○○○ 위원 : 저는 사실 구립도서관장회의에서도 자주 뵈고 서울시 도서관 정책에 같이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 평상시에 늘 같이 고민하고 압박을 넣고 있는 관계라서 다른 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부위원장 :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저희가 안건으로 드린 서울시 2015년도 연도별 시행계획은 위원님들께서 그대로 받아주시는 걸로 하고 승인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동 박수)

○ 부위원장 : 그러면 혹시 또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이나 의견이나 조언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위원 : 정말로 일을 많이 하시고 자리를 잘 잡아 나가시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오늘 처음 들어서 이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 부위원장 :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조언 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그래도 이만큼 할 수 있었습니다. 하고 보니까 아직도 사실은 부족한 부분도 많고요. 저희가 일단 경험도 많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놓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특히 교육청에 계신 관장님들도 워낙 경험들이 많으시고 또 구립은 굉장히 활동적이시고 또 지역밀착형으로 지역주민들하고 많이 밀착되어 있으시고 이런 장점을 저희가 중간에서 잘 연결하고 같이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장애인, 학교, 전문, 대학 이렇게 다, 사실 여기 학교도서관도 오늘 오셨어야 되는데 회의에 안 오셨는데 저희가 각 관종별로 다 모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공공뿐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 도서관들의 관점에서 저희가 위원회에서 보고 각각의 역할들을 가지고 전체의 관점에서 잘 연결하는 역할들을, 저희 도서관 그리고 여기 위원회가 해주셔야 될 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기회가 되면 좀 더 자주 모시고 싶습니다만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뵙고, 이렇게 회의가 아니더라도 수시로 연락드리고 또 언제든지 궁금한 것 있으시면 저희한테 연락주시고 말씀 주시면 저희들이 바로바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관심 있으셔야 될 것 같은데, 저희는 거의 모든 문서를 공개합니다. 제가 결재하면 바로 다음날 다 공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서울도서관’ 이렇게 치시면 제가 어저께 뭘 결재했는지를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거의 모든 문서가 열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늘 보시고, 저희가 사전에 말씀 못 드려도 거의 모든 문서를 공개하니까 잘 보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전문도서관의 시민 이용 편의 제공하는 문제에 대해서 같이 협의드리고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 관장님이 욕심도 많으시고 아이디어도 많으시고, 너무 완벽하게 다 해 오셔 가지고……

○○○ 위원 : 그래서 직원이 부족한 거잖아요. 직원이 많이 부족해요.

○○○ 위원 : 서울도서관이 참 늦게 시작을 했어요. 저희 한국점자도서관은 97년 지을 때만 해도 서울시에서 우리는 시립공공도서관도 안 갖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시립점자도서관을 운영하느냐 해서 구립으로 넘겨준 거거든요. 그래서 구립공공도서관이 됐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늦게 시작을 한 시 대표도서관인데도 불구하고 첫 발부터 전문가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잘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아까도 우리가 책 빌리는 얘기도 했지만 2년 전인가요? 박원순 시장님하고 먼젓번 교육감님 있을 때 서울교육청 도서관하고 구립 지자체 도서관하고 워크숍도 하고 했는데,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게 교육청 도서관하고 지자체 도서관하고 협력이 안 된다, 서로 밥그릇 싸움한다, 이렇게 늘 도서관계가 가지고 있던 문제를 어쨌든 교육감님과 시장님이 ‘우리가 하자’ 이런 의도들을 계속 갖고 있으니까 결국은 이렇게 어우러져 가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떤 정책이든지 사람이 만드는 거거든요. 마음만 열면 다 해결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관장님이 오픈 마인드로 많은 걸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잘 이끌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논의했던 상상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앞으로 실현할 날이 관장님의 마인드와 많은 사람의 협력이 얼마냐에 따라서 1년 내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5년 이내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건전하고 우리나라에서 정말 대표적인 시 대표도서관으로 발전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위원 : 관장님한테 박수쳐 드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일동 박수)

○ 부위원장 : 아닙니다. 저희 직원들이…… 저는 손가락만 없는 사람입니다.

하여튼 이렇게 좋은 말씀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말씀 주셔서 저와 우리 직원들이 더 힘을 내서 더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서울시 정책의 목표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책으로 시민의 힘을 키운다’, 이렇게 해서 그 목표를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 그러면 오늘 이걸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16시 15분 산회)